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장성군 하천이 더욱 건강해진다

장성군이 관내 주요 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황룡강에 이어 평림천의 생태를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장성군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평림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평림천 유역은 평림댐이 건설된 뒤 유량이 감소한 데다 주변 농경지에서 농약이나 비료 성분이 유입돼 육역화(토사 및 부유물이 퇴적지를 형성해 식물 등이 자라고 나아가 해당 퇴적지의 크기가 확대돼 가는 과정)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하천의 일부 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치수적으로 불안정하고 보가 설치돼 물길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끊어진 상태다. 저수로의 직강화(하천의 물길을 직선으로 바꾸는 것)와 물리적 다양성이 부족해 수생생태도 심하게 훼손돼 있다. 실제로 멸종위기 1급인 수달, 멸종위기 2급인 삿, 천연기념물인 원

###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 투입해 내년부터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 착수



앙이 서식하는 하천임에도 상대적으로 어류생물지수(물에 사는 생물의 다양성과 개체 수에 따라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5단계로 물 환경을 구분하는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하천의 3대 기능인 이수·저수·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평림댐 하류 지역인 삼계면 수육리에서 두동교가 위

지한 삼계면 두월리까지 총 8.65km 구간이다.

지난달 생태하천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장성군은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사업을 완료하면 평림천이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 개선 효과와 함께 홍수 등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생태시설을 조성하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숙한 하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천이 살아야 주위 환경도 살아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라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평림천을 황룡강과 함께 장성을 대표하는 명품 하천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

이달 26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흥군은 석면 노출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억 8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56개동의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등의 철거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비용은 가구당 철거면적 기준 약 180㎡(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자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부지 내에 부속건물까지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 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고흥군은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441동에 9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도 사업 포기자 및 기준 미달 등으로 잔액발생에 대비해 예비 후보자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추진본부장

## 구례군, 작지만 강한 '강소농' 희망자 모집

구례군에서는 2월 2일까지 2018년 강소농 지원자 선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 사업장,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한 농촌 체험 농장 등을 운영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로,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계(☎61-780-2096)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소농 지원자는 오는 2월에 실시하는 기본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강소농으로 최종 선정된다.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경영 개선 역량을 위한 교육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및 자문모임체 활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2018년도 강소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농가 스스로가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소득 향상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추진본부장

## 신안군, 신규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공직자 청렴교육·부군수 특강·소양교육 등 실시

신안군은 18일부터 2일간 중도면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올바른 직무수

행 자세에 대한 부군수 특강이 진행되고,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와 우리군 바로 알기 교육, 올바른 노사관계의 이해 등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해 중도면 소규모박물관, 신안 해저유물 발굴비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신안군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올해 처음으로 노사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군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환)이 한 뜻이 되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신안=김정모 기자

## 영광군, '군민 안전 위험물 제거단' 운영



영광군은 주택가나 도로변의 수목이 강풍 등에 의해 쓰러져 주민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군민 안전 위험물 제거단'을 운영한다.

최근 노약자, 부녀자 등 신체적 약자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

주변 등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지난 2016년부터 위험물 제거단을 운영하여 그동안 2878본을 접수 받아 246본을 제거함으로써 40년 동안의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15,32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

년도에 제거하지 못한 위험물 76본

과 경작 이전에 제거를 원하는 농경지 옆 위험물을 우선 제거하고, 연중 피해 접수받은 위험물을 순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위험물 제거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접수 받는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제거단을 투입하여 피해 상황에 따라 인력 제거와 사다리차 이용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 제거에 나선다.

영광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안전"이라며 "주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고사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안전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한파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세요"

보성군, '풍수해보험' 가입 위한 홍보 적극 추진

보성군은 한파, 폭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군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에서 보험가입 안내와 홍보를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및 읍면정 회보, SNS 활용, 마을행정 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설과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 보장재난이 다양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파손 및 침수, 비닐하우스·온실의 골조 파손, 비닐 파손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55~80%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며, 차상위계층은 70%,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가 할인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겨울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가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 안전한 국민생활 전기공급을 위한 대량발전소
- 무심과 해상에서 배양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 도심 속 조밀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 유기물의 생분해성을 이용한 환경바이오메스틸렌소추진
- 비핵심지역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